‘무성서원에서 고운 최치원 선생을 만나요”

정읍시, 창작연극 ‘고운 최치원 태산에서 만나다’ 공연

창작연극 ‘고운 최치원 태산에서 만나다’가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1일과 3일 저녁 8시, 10월 12일 오후 2시 모두 4차례 이어진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9천만원을 활용해 ‘1박2일 서원체험’과 ‘왈왈사관학교’와 향사인물 연극공연 등을 운영하는데, 이번 공연은 이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극만 문화영토 판’에서 펼치는 이번 공연 작품은 극작과 연출은 백민기, 작곡은 허귀행이 맡았고 안대원과 이원구, 이빛나 등이 출연한다. 작품은 고운이 어린 나이에 당나라 유학에 올라 당나라에 과거시험에 합격해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는 과정에서부터 귀국 후 태산군수(현재의 태인)로 부임해 선정을 펼치고, 떠나기까지 등 그의 삶의 족적을 그리고 있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의 배경이기도 한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에 자리한 무성서원은 신라 말 고운이 태산태수로 부임해 8년 동안 선정을 베푼 치적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세운 생사당인 ‘태산사’에서 유래한다.

숙종 22년(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액됐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 전라북도 내 유일한 서원이다.

고운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013년 박근혜 태통령과의 정상회담 환영사와 2014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의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무성서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향사인물을 재조명, 역사적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공연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무성서원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 관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창작연극 ‘고운 최치원 태산에서 만나다’

시간의 흐름속에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넘나들다

전북도립국악원 목요예술무대, ‘귀향-현대무용과의 만남’ 공연

전북도립국악원 목요예술무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넘나들다.

전북도립국악원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교차하는 무대로 하반기 목요예술무대를 열어간다.

9월 1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귀향-현대무용과의 만남〉 이번 공연은 한국·현대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연출 젊은 감각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발굴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기획됐다.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날 공연의 첫 무대는 김원(전북대학교 무용과 현대무용) 교수, 최재희, 탁지혜가 선보이는 현대무용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다’로 연다.

이 작품은 삶에서 오래된 혹은 순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이어 이준모(전북대학교 무용과 생활무용) 교수가 불교의 상례절차인 ‘다비’의 철학을 무대에 반영한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는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현대무용 작품이다.

이어지는 ‘돌아가는 길’은 관람객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작품으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룬다.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송형준 단무장과 탁지혜가 공연을 선보인다. ‘기다리는 자와 돌아오는 자의 긴 기다림’이 부제인 이 공연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가진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춤의 경계를 허문 색다른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날 공연의 대미는 고통, 넋풀이, 혼을 달래는 내용으로 구성된 ‘넋-나비가 되어’가 장식한다.

이는 삶과 죽음 사이, 죽음이라는 비극적 정서가 삶의 낙천적 정서로 변환되는 샤머니즘을 구현한 작품이다. 무대에는 이윤경 지도위원을 비롯하여 배승현, 이유미, 강현범, 배혜국, 이종민, 천지혜, 오대원 단원이 오른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문화가 있는 추석 연휴되도록 ‘한가위 문화 · 여행주간’ 설정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열흘 간 문화·여행 시설에 대한 집중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다음달 10~18일을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전국 800여개 문화·여행 시설이 할인되고 이 기간 지역축제도 연계한다.

국립미술관, 4대 고궁 종묘는 무료개방된다.

프로야구경기 일반석, 주요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 이용료는 할인된다.

자연휴양림과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료 등도 할인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광주·부산 비엔날레, 인천상륙작전 축제,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20여개 지역축제도 추석 연휴와 연계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희망자 대상)를 9월 초에 조기지급하는 등 가을휴가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열어 2122개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할인 판매에 나선다. 농협 특판장 등을 통해 과일·축산물 선물세트 10~30%, 공영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a마켓, 인터넷 수협쇼핑 등)에서 성수품 15~30% 할인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3000억원 확대하고 취급가판도 늘리는 등 소비활동도 지원한다. 주요 카드사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하고 한우와 채소 및 과일 물량도 1.4배로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또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에 22조9000억원(대출 20조9000억원, 보증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뉴시스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 자원활동가 비비미 모집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는 축제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로 활약할 비비미를 오는 9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주비빔밥축제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자로

만 18세 이상, 행사기간 중 전체 참여가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분야는 음식체험, 공연·이벤트, 경연을 진행해 줄 행사진행팀, 행사자원과 질서유지 등을 담당할 행사운영팀, 안내 및 통역을 담당해 줄 홍보팀 자원봉사자로 총 100여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지급(교통비)과 행사기간 중 식사 및 간식, 음료 제공을 비롯해 유니폼, 기념품 및 ID카드 지급되며 자원봉사 시간 인정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16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는 맛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릴 예정이다.

자원봉사 참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231-8969로 문의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무형문화재 보전 등에 관한 법률’ 세미나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한국민속학회(학회장 김종대)와 공동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반세기 만에 정비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보다 폭넓은 무형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전국단위의 무형유산 기초조사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전통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총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전문가 10명의 연구 성과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음악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 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유산 조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일상에서 친숙한 문화유산인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에 대해 무형유산 보호 대상으로서 민간의료분야의 현재와 향후 수집, 기록 연구의 방향;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조사 연구 방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조사·보호의 문제, 무형문화재로서 식생활 조사 방법의 방향 등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조사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해 본다. 3부에서는 무형유산으로서의 마을신앙 조사와 기록화의 방향; 신법 체제에 따른 무형유산 전국 조사 사업의 방향성 검토, 신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 기예·무예 조사 방법 발표가 이어진다.

연구 성과 발표 후에는 이경엽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져 의견을 공유하고 무형유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무형유산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3-280-1512. /정해은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백정현지휘자 위촉

군산시는 시립교향악단 제10대 지휘자에 백정현(46)씨가 선정돼 다음달 1일 위촉식을 갖는다.

군산시는 지난 6월 전국에 걸쳐 진행한 공모를 통해 지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류, 실기(리허설), 공연 지휘, 면접심사와 함께 교향악단 단원들의 의견을 거쳐 백정현 지휘자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2년간 군산시립교향악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백 지휘자는 1996년 오스트리아 그라츠국립음대 지휘과 입학, 6년 만에 학·석사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명에게만 주어지는 그라츠 국립음대 대학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비엔나 오페라 컴퍼니가 주최한 젊은 지휘자를 위한 마스터코스 파이널콘서트에서 말러교향곡을 지휘하여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8월 30일〉

▷쥐띠
48년생: 건강에는 좋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한 운이 아니다.
72년생: 인덕이 따르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

▷소띠
49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매사 냉철하게 처리하라.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7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85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니 참고하라.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원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일찍 움직이고 지나친 욕심은 금물임을 명심하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이니 무리한 운동과 활동은 피하라.

▷토끼띠
51년생: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3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이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87년생: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마음쓰지 말라.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적극 도와줘라.
64년생: 먼저 베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할 뿐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길하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되니 매사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조심하라.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띠
54년생: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것이 좋겠다.
66년생: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양띠
55년생: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67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충동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원숭이띠
56년생: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하니 방심은 금물이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뺨 맞는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개띠
46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나갈곳은 여기저기 많으나 들어올곳은 한정적이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0년생: 좋은 결실을 맺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돼지띠
47년생:말을 골라서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다.
59년생: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여성은 다른사람과 동행하거나 일찍 귀가하는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